

사회적기업의 성장결정요인의 지역별 비교를 통한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s of Social Enterprises by
Regional Comparison of Growth Decisions)

함재봉¹⁾, 윤복만²⁾, 박근³⁾
(JaeBong Ham, BokMan Yoon, and Keun Park)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별 비교를 통하여 성장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출액 결정요소에서는 수도권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집약도, 경상지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 충청지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정부지원금 의존도, 전라·제주 지역은 근로자총인원·자본이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자산 결정요소에서는 수도권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 강원지역은 자본, 경상지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 충청지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집약도, 전라·제주지역은 근로자총인원·자본, 자본집약도가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핵심주제어 : 사회적기업, 지역경제, 성장, 정부지원금, 자본집약도, 매출액

Abstract Since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increased more than double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determinant of their growth by regional comparison is examined in this paper. In terms of the sale determinant,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total number of workers, business history, and capital intens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total number of workers, business history, and capital intensity in Gyeongsang area, the total number workers, business history, and the dependence on government subsidies in Chungcheong area, the total number of workers, and the capital intensity in Jeolla/Jeju area have showed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asset determinant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total number of workers, business history, and capital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capital in Gangwon area, the total number of workers, business history, and capital in Gyeongsang area, the total number of workers, business history, and capital intensity in Chungcheong area, the total number of workers, capital, and capital intensity in Jeolla/Jeju area have showed positive effect.

Keywords: Social enterprises, Local economies, Growth, Government support funding, capital intensity, Sales

* Corresponding Author: proham@hanmail.net
Manuscript received January 02, 2020 / revised February 06, 2020 / accepted February 24, 2020
1) 경북도립대학교 지방행정과, 제1저자, 교신저자
2) 경운대학교 의료서비스경영학과, 공동저자
3) 경운대학교 의료서비스경영학과, 공동저자

1. 서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2017년 기준 사회적기업 수는 1,877개,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1,194개이며, 총매

출액은 약 3.5조,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19.3억이다.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 (68.6%), 기타형 (10.3%), 혼합형 (10.0%), 사회서비스제공형 (6.3%) 순이다. 이와 함께 연매출 5천만원 이하인 기업 (61개)도 있지만 경쟁력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사회적기업 (40개)이 증가하면서 사회적기업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전체 고용인원은 4.1만명, 평균 고용은 약 22명, 매출액 대비 고용은 1억당 2명 (전체 사업체 평균 고용 5.4명, 매출액 대비 전체 사업체 1억당 0.4명)이다 (Statistics Korea, 2016). 이중 전체 고용인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60% 수준으로, 규모는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 (Council for Employment Policy Consultation, 2018).

고용의 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사회보험별 가입률은 국민연금 93.3%,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97.0%, 산재보험은 98.4%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97.6% (전체 89.1%, 2017년)이다. 이와 함께 이직의사를 감소시키는 것 (Kim et al., 2018)을 비롯하여 2016년 기준 사회적기업 평균임금은 154만원으로 일자리의 안정성 (상용직 94.1%) 등의 이유로 종사자의 근로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Council for Employment Policy Consultation, 2018).

이처럼 급속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에 대한 가능성 또는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여러 시각이 따르고 있다. 먼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면 자립 성공 어려울 것” (Shin, 2010), “제도를 악용하기만 할 것” (Cho et al., 2012), “정부 의존도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Jeong et al., 2013),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취약할 것” (Heo, 2014), “짧은 업력과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 (Yang, 2015) 등이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 개발비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기업이 도산되거나 생존하여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 내에서 사회적기업의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에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성장 원동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그 동안의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생존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정된 기업부터 업력이 아직 2, 3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설립 초기단계의 기업도 있다. 또 이미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도 있다. 과거에는 한국의 기업의 업력과 성장률, 그리고 그 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할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보다 풍부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 원동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기업의 성장률과 성장 원동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최초의 연구로는 Gibrat (1931)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업성장률과 기업의 규모는 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후로 Simon et al. (1958)는 기업의 성장률과 기업의 규모에 대하여 음의 관련성을 주장하였으며, Mansfield (1962)는 이러한 결과가 표본에서 성장이 더딘 기업을 제외시킨 분석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Singh et al. (1975)는 영국 산업의 기업들을 분석하여 기업 성장률과 규모의 양의 관련성을 주장하였고 Gibrat (1931)은 작은 규모의 기업이 대기업들에 비해 쇠퇴하기 쉽고 생존하는 기업들은 높은 성장률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Jovanovic (1982)은 기업의 업력과 성장률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신생 기업들이 오래된 기업들보다 빨리 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업은 생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기업은 성장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쇠퇴하여 규모의 차이에 따라 그 기업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Evans (1987a, 1987b)는 Gibrat (1931)의 기업성장모형에 Jovanovic (1982)의 연구에서 기업성장모형을 설명하는 주요변수인 기업의 업력을 추가하여 새로운 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업 규모, 기업업

력,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고 기업의 성장률은 기업의 업력이 많을수록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Mansfield (1962)의 표본선택의 문제를 통제한 후 기업의 성장률과 기업의 규모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Gibrat (1931)의 무관관성 법칙이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종전의 논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구분하면서 성장 결정 요인만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Evans (1987a, 1987b)의 성장모형을 확대하여 분석 모형에 사회적기업 성장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자산, 업력, 직원수, 자본, 정부지원금 의존도, 자본집약도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동원력을 가졌고 또한 가장 영향력이 큰 자원의 분배자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태도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여부에 크게 기여할 수 밖에 없다.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1,227개소이며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으로 2015년과 2016년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Korea Labor Institute, 2018).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비교를 통하여 성장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사회적기업 경영 정보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기업의 특성

사회적기업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윤극대화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일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되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가치인 사회적 문제 해결은 정부의 역할이었으나 실패함으로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은 정부조직에 비해 첫째, 활동이 자유롭고 신속성이 있으며, 둘째, 위험비용이 적고 융통성이 있어 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Yang, 2011).

또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비즈니스기법과 경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이 혼합 (Lee et al., 2012)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Hwang et al., 2014). 이처럼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회적 기업은 그 목적이 경제적인 부의 창출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특성을 가진다 (Dees, 1998; Kim et al., 2012).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네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결과를 추구하며, 둘째로, 사회적기업은 관련 이해당사자에 의한 복합적인 협치 (Governance) 구조를 지니며, 셋째로, 사회적기업의 자원 출처는 다양하며, 넷째로, 사회적기업은 정부, 사적기업, 다른 사회적 기업과의 파트너십과 협동 (Collaboration)이라는 동반성장 (Kwon et al., 2018)이 필수적인데 이는 사회적기업이 채택하는 대부분의 업종 자체가 이와 같은 파트너십의 역동성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Han, 2004).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중간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을 정의 내리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소셜미션'의 존재 여부다. 즉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존재하는 기업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전국적 단위, 혹은 전 지구적 단위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들도 많지만, 현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기업은 그 기업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문제의 발견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모두가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지역성이라는 것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Jang, 2014).

예를 들어 농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역할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생산과정에 있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의 확대, 관행농의 개선 및 교육지원, 행정 및 대리경작 서비스, 다문화 및 고령자 중심의 일자리 및 복리후생 제공을 통한 농촌 지역 종합 복지 기관적 역할 수행, 1차 생산물 가공을 통한 지역소농 생산물 수매 및 고부가가치화 등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외부적으로는 학교급식 등과 연계한 지역 청소년 대상의 좋은 먹거리 공급, 지역 농산물 순환체계 구축, 귀농귀촌 인력의 인큐베이팅 및 중간 허브, 도시 소비자 그룹과의 활발한 연대 활동,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생태적 적정기술의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지역 청소년 교육 및 공연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이 농촌지역의 부족한 교육 및 문화영역에서 주요한 활동주체로 활약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자체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것, 강화된 시민 역량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 가운데 사회적기업 형태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필요 (Yoon et al., 2017)하고, 기존 사회적기업들이 계속해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작동하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 통계자료는 사회적기업진

흥원의 2018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데이터로 2015, 2016, 2017년 등의 3개연도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대상 481개 기업이며, 결측치가 있는 특정연도의 일부 기업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거하여 총 1,363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제도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미래의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중 공시의사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실시한다.

분석방법은 3개년도에 걸쳐 있는 패널데이터이지만, 시간이 너무 짧음에 따라 연도를 포함한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을 해보아도 연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Pooled OLS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Fig 1)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Evans (1987a, 1987b)의 성장모형을 확대하여 분석 모형에 한국 사회적기업 성장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업력, 직원수, 자본, 정부지원금 의존도 (정부지원금/매출액), 자본집약도 (자본/직원수) 등의 독립변수가 매출액, 자산 등의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각 지역별로 회귀분석을 하여 그 계수를 지역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지역은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진라/제주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독립변수 중 정부지원금 의존도의 경우 Kim (2015)은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지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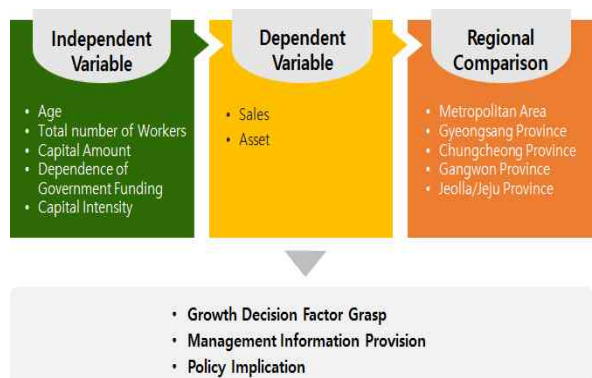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이 자원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조직정당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자원이동이 가능해지는 순환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 자본집약도에 대하여 Sung (2000)과 Kim (2007)은 자본집약도는 향후 연구개발투자로 옮겨간다고 보았다.

각 분석대상 변수의 기초통계량 (Table 1)을 보면, 자산은 평균 11억6천만원, 매출액은 평균 27억3천만원, 업력은 평균 8.52년, 근로자총인원은 평균 30.1명, 자본은 평균 4억3천만원,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평균 23.17%, 자본집약도는 21403.55로 각각 나타났다.

분석을 하기에 앞서 변수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빈도 분포표 (Histogram)을 그려본 결과, Fig 2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변수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 모두에 대해 Fig 3와 같이 로그변환을 하여 추세를 가지도록 한 결과 비교적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3.2 분석대상 기업의 특성

본 논문은 성장모형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성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의 지역간 차이 (Table 2)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매출액은 수도권이 평균 58.4억, 경상 12.5억, 충청 12.0억, 전라/제주 9.9억, 강원 7.4억 등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F=1.700, p>.05). 자산은 역시 수도권이 평균 18.4억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원 14.9억, 경상 9.0억, 전라/제주 6.2억, 충청 6.1억 등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F=2.289, p>.05). 하지만 기업의 업력은 수도권 9.24년, 강원 8.35년, 충청 8.25년, 경상과 전라/제주 등이 각각 8.08년 등으로 지역간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5.762, p<.001). 다만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근로자총인원의 경우 수도권이 42.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청 31.95명, 경상 24.77명, 전라/제주 18.76명, 강원 15.31명 등의 순으로 지역간의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F=7.587, p<.001). 자본의 경우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810, p<.05), 수도권이 637.26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원 535.77만원, 경상 337.71만원, 전라/제주 282.95만원, 충청 265.6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1.368,

Table 1 Basic Statistics

	Minimum Values	Maximum Valu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sset(one million won)	0.00	171,121.74	1,157.97	6,486.24
Sales(one million won)	-271.37	1,050,641.45	2,729.92	31,771.22
Age	2.00	38.00	8.52	4.09
Total Number of Workers(person)	1.00	685.00	30.10	66.26
Capital Amount(one million won)	-487.88	29,913.92	429.67	1,771.02
Dependence on Government Funding	-31.81	541.22	23.17	44.15
Capital Intensity	-69,020.00	3,435,915.00	21,403.55	99,280.91

$p < .001$). 마지막으로 자본집약도에서는 역시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5.245, p < .001$),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수도권 (20439.38), 전라/제주 (20107.17), 경상 (16136.35), 충청 (15745.98) 등에 비해 강원 (70698.63)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의 여지는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자산은 독립변수인 업력과 $r=.409$, 근로자총인원과 $r=.468$, 자본과 $r=.575$, 자본집약도와 $r=.372$ 등의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정부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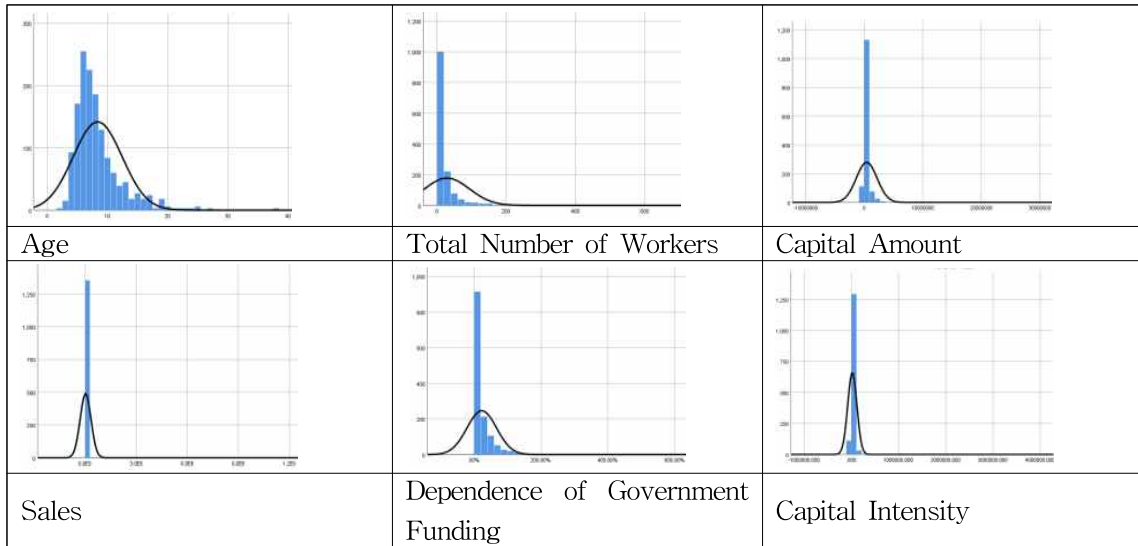


Fig. 2 Histogram of Variables Before Log Trans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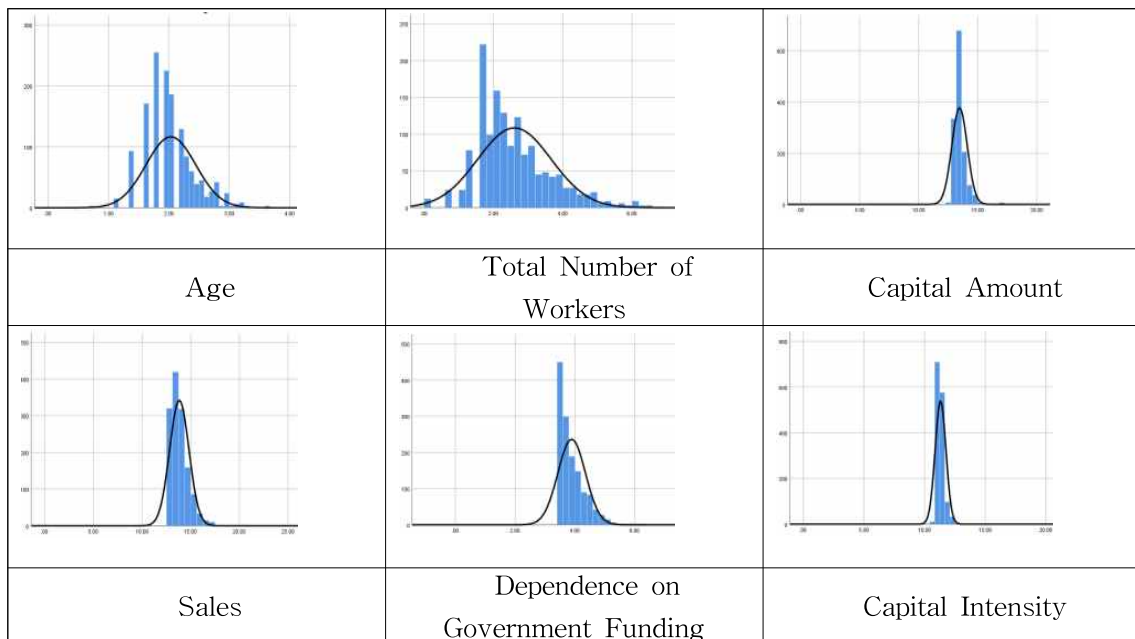


Fig. 3 Histogram of Variables After Log Transformation

Table 2 Interregional Comparison Test

	Metropolit an area	Gang-won	Gyeongsang	Chungheong	Jeolla/Jeju	F(p)
Sales(one million won)	5,839.84	735.06	1252.50	1199.12	994.19	1.700
	(54,179.53)	(972.79)	(3308.49)	(1693.89)	(2330.20)	(.148)
Asset(one million won)	1,839.38	1490.98	903.91	610.19	624.64	2.289
	(10,138.28)	(9424.50)	(2411.30)	(832.49)	(1053.45)	(.058)
Age	9.24	8.35	8.08	8.25	8.08	5.762***
	(4.66)	(3.30)	(4.21)	(3.25)	(3.41)	(.000)
Total Number of Workers (person)	42.28b	15.31a	24.77ab	31.95ab	18.76a	7.587***
	(90.78)	(27.54)	(54.69)	(62.33)	(22.42)	(.000)
Capital Amount(one million won)	637.26	535.77	337.71	265.64	282.95	2.810*
	(2580.39)	(3122.29)	(949.36)	(456.90)	(425.42)	(.024)
Dependence on Government Funding	15.75a	19.71ab	31.48b	15.14a	32.29b	11.368***
	(36.51)	(23.43)	(39.50)	(40.02)	(62.56)	(.000)
Capital Intensity	20439.38a	70698.63b	16136.35a	15745.98a	20107.17a	5.245***
	(44148.63)	(391294.81)	(34807.25)	(21563.89)	(24611.79)	(.000)

* p<.05, ** p<.01, *** p<.001

※ scheffePost-mortem indicates a<b.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sset	Sales	Age	Total Number of Workers	Capital Amount	Dependence on Government Funding	Capital Intensity
Asset	1						
Sales	.730**	1					
Age	.409**	.413**	1				
Total Number of Workers	.468**	.593**	.260**	1			
Capital Amount	.575**	.525**	.295**	.369**	1		
Dependence on Government Funding	-.225**	-.266**	-.175**	-.185**	-.134**	1	
Capital Intensity	.372**	.223**	.089**	-.013	.432**	-.183**	1

* p<.05, ** p<.01, *** p<.001

의존도와 $r=-.225$ 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 자본집약도 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낮을수록 자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 다른 종속변수인 매출액은 독립변수인 업력과 $r=.413$, 근로자총인원과 $r=.593$, 자본과 $r=.525$, 자본집약도와 $r=.223$ 등의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정부지원금 의존도와 $r=-.266$ 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 자본집약도 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낮을수록 매출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7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연구결과

4.1 매출액을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

매출액 결정요소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Table 4와 같다.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업력 ($\beta=.200, p<.001$), 근로자총인원 ($\beta=.427, p<.001$), 자본 ($\beta=.260, p<.001$), 정부지원금 의존도 ($\beta=-.102, p<.001$), 자본집약도 ($\beta=.080, p<.001$) 등으로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 자본집약도 등은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유의하게 부 (-)의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하다.

지역별 분석에서 수도권 경우, 업력 ($\beta=.217, p<.001$), 근로자총인원 ($\beta=.588, p<.001$), 정부지원금 의존도 ($\beta=-.143, p<.001$), 자본집약도 ($\beta=.080, p<.001$) 등으로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집약도 등은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유의하게 부 (-)의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집약도 등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 ($\beta=.590, p<.001$), 정부지원금

의존도 ($\beta=-.438, p<.001$) 등으로 자본은 많을수록, 그리고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낮을수록 매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지역의 경우 업력 ($\beta=.133, p<.001$), 근로자총인원 ($\beta=.254, p<.001$), 자본 ($\beta=.554, p<.001$), 정부지원금 의존도 ($\beta=-.241, p<.001$) 등으로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 등은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유의하게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자본집약도는 유의하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은 업력 ($\beta=.220, p<.001$), 근로자총인원 ($\beta=.344, p<.001$), 정부지원금 의존도 ($\beta=.430, p<.001$) 등으로 업력, 근로자총인원, 정부지원금 의존도 등은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정부지원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라/제주지역의 경우 근로자총인원 ($\beta=.514, p<.001$), 자본($\beta=.170, p<.05$), 정부지원금 의존도 ($\beta=-.168, p<.001$) 등으로 근로자총인원, 자본은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자본집약도는 유의하게 부 (-)의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업력, 자본집약도 등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연구모형은 분석에 적합하였으며, 모형설명력은 49.3%~68.7%의 범위를 보였다.

각각의 독립변수별로 5개 지역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력의 경우 충청 ($\beta=.220, p<.001$)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 ($\beta=.217, p<.001$), 경상 ($\beta=.133, p<.001$) 등의 순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강원과 전라/제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총인원은 수도권 ($\beta=.588, p<.001$), 전라/제주 ($\beta=.514, p<.001$) 등이 비교적 높고, 충청 ($\beta=.344, p<.001$), 경상 ($\beta=.254, p<.001$) 등의 순으로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강원지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를 보였다.

자본은 강원 ($\beta=.590, p<.05$), 경상 ($\beta=.554, p<.001$) 등이 비교적 높은 반면, 전라/제주 ($\beta=.170, p<.001$)는 낮은 수준에서 유의하게 정 (+)

Table 4 Sales Determinants Analysis

	Total	Metropolit an area	Gangwon	Gyeongsang	Chungcheo ng	Jeolla/Jeju
Age	0.200*** (9.903)	0.217*** (7.111)	0.167 (1.989)	0.133*** (4.781)	0.220*** (3.867)	-0.060 (-1.478)
Total Number of Workers	0.427*** (20.055)	0.588*** (17.365)	0.205 (1.520)	0.254*** (8.232)	0.344*** (3.914)	0.514*** (8.703)
Capital Amount	0.260*** (11.078)	0.079 (1.890)	0.590* (2.578)	0.554*** (16.392)	0.189 (1.816)	0.170* (2.167)
Dependence on Government Funding	-0.102*** (-5.192)	-0.143*** (-4.920)	-0.438*** (-5.205)	-0.241*** (-8.220)	0.430*** (8.358)	-0.168*** (-4.581)
Capital Intensity	0.080*** (3.675)	0.231*** (5.723)	-0.411 (-1.723)	-0.053 (-1.810)	0.116 (1.236)	0.515 (6.915)
n	1363	465	77	352	203	266
F (p)	290.990*** (.000)	15.342*** (.000)	23.745*** (.000)	227.025*** (.000)	38.259*** (.000)	114.300*** (.000)
R ²	.518	.629	.626	.767	.493	.687

Standardization Factor (t-value)

* p<.05, ** p<.01, *** p<.001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자본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강원 ($\beta=-.438$, $p<.001$), 경상 ($\beta=-.241$, $p<.001$), 전라/제주 ($\beta=-.168$, $p<.001$), 수도권 ($\beta=-.143$, $p<.001$) 등이 유의하게 부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충청 ($\beta=.430$, $p<.001$)은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자본집약도의 경우 수도권 ($\beta=.231$, $p<.001$)에서만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지역들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2 자산을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

자산 결정요소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Table 5와 같다.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서 업력 ($\beta=.213$, $p<.001$), 근로자총인원 ($\beta=.293$, $p<.001$), 자본 ($\beta=.304$, $p<.001$), 정부지원금 의존도 ($\beta=-.055$, $p<.01$), 자본집약도 ($\beta=.215$, $p<.001$) 등으로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 자본집약도 등은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유의하게 부 (-)의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매출액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슷하였다.

지역별 분석에서 수도권의 경우, 업력 ($\beta=.207$, $p<.001$), 근로자총인원 ($\beta=.565$, $p<.001$), 자본 ($\beta=-.112$, $p<.05$), 정부지원금 의존도 ($\beta=.093$, $p<.01$), 자본집약도 ($\beta=.546$, $p<.001$) 등으로 업력, 근로자총인원, 정부지원금 의존도, 자본집약도 등은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자본은 유의하게 부 (-)의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집약도 등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 ($\beta=1.068$, $p<.001$), 정부지원금 의존도 ($\beta=-.328$, $p<.001$) 등으로 자본은 많을수

Table 5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Assets

	Total	Metropolit an Area	Gangwon	Gyeongsang	Chungcheong	Jeolla/Jeju
Age	0.213*** (10.274)	0.207*** (6.386)	0.019 (0.261)	0.127*** (3.801)	0.140** (2.997)	0.068 (1.494)
Total Number of Workers	0.293*** (13.392)	0.565*** (15.666)	-0.121 (-1.032)	0.078* (2.098)	0.512*** (7.103)	0.161* (2.463)
Capital Amount	0.304*** (12.604)	-0.112* (-2.496)	1.068*** (5.347)	0.626*** (15.478)	0.148 (1.735)	0.479*** (5.511)
Dependence of Government Funding	-0.055** (-2.721)	0.093** (2.989)	-0.328*** (-4.464)	-0.180*** (-5.133)	-0.017 (-0.413)	-0.072 (-1.769)
Capital Intensity	0.215*** (9.653)	0.546*** (12.712)	-0.353 (-1.700)	0.026 (0.754)	0.501*** (6.481)	0.251** (3.039)
n	1363	465	77	352	203	266
F(p)	261.949*** (.000)	125.739*** (.000)	35.723*** (.000)	137.512*** (.000)	75.894*** (.000)	83.230*** (.000)
R ²	.491	.578	.716	.666	.658	.615

Standardization Factor (t-value)

* p<.05, ** p<.01, *** p<.001

록, 그리고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낮을수록 자산 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지역의 경우 업력 ($\beta=.127, p<.001$), 근로자총인원 ($\beta=.078, p<.05$), 자본 ($\beta=.626, p<.001$), 정부지원금 의존도 ($\beta=-.180, p<.001$) 등으로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 등은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유의하게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자본집약도는 유의하게 자산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은 업력 ($\beta=.140, p<.01$), 근로자총인원 ($\beta=.512, p<.001$), 자본집약도 ($\beta=.501, p<.001$) 등으로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집약도 등이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지원금 의존도 등은 충청지역 사회적 기업의 자산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라/제주지역의 경우 근로자총인원 ($\beta=.161, p<.05$), 자본 ($\beta=.479, p<.001$), 자본집약도 ($\beta=.251, p<.001$) 등으로 근로자총인원,

자본, 자본집약도 등이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력, 정부지원금 의존도 등은 자산규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연구모형은 분석에 적합하였으며, 모형설명력은 57.8%~71.6%의 범위를 보였다.

각 독립변수별로 5개 지역별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업력의 경우 수도권 ($\beta=.207, p<.001$)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충청 ($\beta=.140, p<.001$), 경상 ($\beta=.127, p<.001$) 등의 순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강원과 전라/제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매출액에 대한 분석결과와 같다.

근로자총인원은 수도권 ($\beta=.565, p<.001$), 충청 ($\beta=.512, p<.001$) 등이 비교적 높고, 전라/제주 ($\beta=.161, p<.05$), 경상 ($\beta=.078, p<.05$) 등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강원지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를 보였고, 역시 매출액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자본은 강원 ($\beta=1.068, p<.001$), 경상 ($\beta=.554, p<.001$) 등이 비교적 높은 반면, 전라/제주 ($\beta=.170, p<.001$)는 낮은 수준에서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자본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강원 ($\beta=-.328, p<.001$), 경상 ($\beta=-.180, p<.001$) 등에서는 자산에 부 (-)의 영향을, 수도권 ($\beta=.093, p<.01$)에서는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청지역과 전라/제주 지역은 자산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약도의 경우 수도권 ($\beta=.546, p<.001$), 충청 ($\beta=.501, p<.001$), 전라/제주 ($\beta=.251, p<.01$) 등에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원, 경상 지역에서는 자산형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비교를 통하여 성장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도입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경영진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분석결과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 자본집약도 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낮을수록 자산과 매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결정요소에서는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 자본집약도 등은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유의하게 부 (-)의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집약도, 경상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 충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정부지원금 의존도, 전라/제주는 근로자총인원·자본이 정 (+)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자산 결정요소에서는 업력, 근로자총인원, 자본, 자본집약도 등은 유의하게 정 (+)의 영향을,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유의하게 부 (-)의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 강원은 자본, 경상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 충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집약도, 전라/제주는 근로자총인원·자본, 자본집약도가 정 (+)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비교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의 경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적기업과 여러 경제주체들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실업, 빈곤, 범죄 등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들은 단일한 행위자나 기관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행위자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파트너십을 통하여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 효과성 증대와 함께 새로운 정책개발과 서비스 공급으로 혁신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양자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이 사회적기업이 파트너십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통합에 비중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의 조직화이며, 이는 사회적기업의 경영 중 중요한 의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그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의 소산이며, 사회적기업은 이를 유념해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복지수요의 증대와 기존 경제시스템의 일자리 창출의 한계라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당면 과제임은 분명하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대처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분석에서 도출된 것처럼 정부지원금 의존도는 오히려 부 (-)의 관계

가 나타나므로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관련 경영지식과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인적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다소 경직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기업경영에 있어 사회적기업이 주민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 공시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Cho, S. M., Kwon, C. S. and Kim, K. S. J. (2012). Does the Organization Factor Affect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64(3), 29-50.
- Council for Employment Policy Consultation. (2018). Warm Growth Drivers in the Low-Generation Era The 3rd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lan (2018-2022), *Working Paper*.
- Dees J. G. (1998). *Enterprising Nonprofit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oks.
- Evans, D. S. (1987a). Tests of Alternative Theories of Firm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657-674.
- Evans, D. S. (1987b).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Growth, Size, and Age: Estimates for 100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5(4), 567-581.
- Gibrat, R. (1931). *Les Inegalites Economiques*, Paris: Librairie du Recueil Sirey, Paris, France.
- Han, S. J., and Hwang, M. Y. (2009). *Community Welfare and Resources Division: General Research of Asan Foundation*, 269, Jipmundang, Seoul.
- Heo, D. H. (2014). Sustainability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Japan*, 2014(8), 237-239.
- Hwang, D. S., Park, J. S. and Kim, S. Y. (2014). An In-depth Case Study on the Types of Social Enterprises, Seoul: Korea Labor Institute, *Working paper*.
- Jeong, G. J., Seo, I. S. and Jang, H. S.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Focusing on Resource Dependency Theory,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22(1), 171-202.
- Jovanovic, B. (1982). Selection and the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46, 649-670.
- Jung, H. H. (2014). Gyeongbuk Social Enterprise Support Plan, Daegu: Daegu Gyeongbuk Institute, *Working paper*.
- Kim, H. D. (2015). A Study of Causal Pathway on the Sustainability of Hybrid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 Focusing on the Causal Guidance Framework and Analysis of Social Purpose Type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42(3), 293-322.
- Kim, J. W., Kim, K. I., and Park, H. J. (2018). The Impact of Family-Friendly Corporate Culture on Employees'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3(2), 75-92.
- Kim, S. H. (2007). An Analysis on the Growth of Korean firms: Focusing on Technological Innov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Working paper*.
- Kim, Y. U., Lee, J. M., Jung, S. H., and Choi, Y. G. (2012). Impact of Social Enterprise Partnerships on Corporate Performance,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22(4), 65-92.
- Korea Labor Institute. (2018). 2017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Analysis, Seoul: Korea Labor Institute, *Working Paper*.
- Kwon, J. D. and Lee, J. C. (2018). The Effects of Mutual Growth and Trust Management on

Outsourcing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3(1), 65-86.

Lee, H. S., Hyung, Y. J., and Lee, C. W. (2012). A Study on the Strategic Development Direction of Local Social Enterprise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s in Jeollabuk-do, *Korean Industrial Economy Journal*, 4(2), 15-37.

Mansfield, E. (1962). Entry, Gibrat's Law, Innovation, and the Growth of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52(5), 1023-1051.

Shin, M. H. (2010). Factors Affecting the Creation and Sustainability of Wonju Regional Cooperatives, *Mental Culture Research*, 36(2), 32-55.

Simon, H. A., and Bonini, C. P. (1958).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48(4), 607-617.

Singh, A., and Whittington, G. (1975). The Size and Growth of Firm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1), 15-26.

Statistics Korea. (2016). *The Business Survey*. Daejeon, Statistics Korea, *Working Paper*.

Sung, H. Y. (2000). An Empirical Study on the Firm Growth, Size and Age with Korean Manufacturing Firms, *Industrial Organization Research, Korea Industrial Organization Society*, 8(2), 71-85.

Yang, O. S. (2015). A Study on Determinants of Sustainability of Social Innovative Enterprises, *International Regional Study*, 19(1), 157-204.

Yang, S. J. (2011). *A Case Study on Cooperative Governance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tate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Yoon, M. J., and Jeon, I. O. (2017). An Influence of Small Business Market Orient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2), 91-106.



함재봉 (JaeBong Ham)

- 정회원
-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중앙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경제학석사
-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경북도립대학교 지방행정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소득불평등, 경제성장, 기업성장, 기술경제



윤복만 (BokMan Yoon)

- 정회원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경희대학교 상업교육과 교육학석사
-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경운대학교 간호보건대학 의료서비스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편경영, 마케팅, 기업성장



박근 (Keun Park)

- 정회원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경운대학교 간호보건대학 의료서비스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CRM, 마케팅, 주거만족, 의료만족